



INCHEON AIRPORT MAGAZINE

# MORE & BEYOND

JANUARY+FEBRUARY

Vol.85

# 다시 길 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꿈이 부푸는

1월 1일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킬

새해의 다짐들과 염원들.

찬 겨울을 뚫고 붉게 떠오른 태양처럼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당신의 일 년에 인천공항도 함께합니다.





#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을 밝힙니다

다시 여행을 시작한 당신의  
들뜬 마음과 분주한 시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인천공항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여행에 들뜨는 이곳에서  
다시 당신과 안녕하기 위해  
인천공항은 오늘도 불을 밝힙니다.





# CONTENTS

MORE&BEYOND  
2023 JANUARY+FEBRUARY  
VOL.85

인천국제공항 매거진  
MORE&BEYOND  
격월간(비매품)

등록번호 인천중, 바00008

발행처 인천국제공항공사

발행인 김경욱

발행일 2023년 1월 5일

담당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032-741-2115

기획·디자인 및 제작

승일미디어그룹 1800-3673

## THEME

08  
CEO 신년사

10  
명예홍보대사 신년인사  
배우 이제훈, 배우 채수빈

12  
ADIEU 2022  
ADIEU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항을 구축하다

20  
HELLO 2023,  
HELLO FUTURE ICN  
ReNewOne 2023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공항

28  
OPINION  
‘별 다섯’ 인천공항의  
서비스 이니셔티브

32  
PEOPLE  
국경과 국경 사이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  
공항이라는 ‘공간’

38  
SURVEY  
2023년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나요?

## PLUS I CULTURE & LIFE

40  
TRAVEL  
하얀 낭만의 도시  
오타루

48  
LIFE STYLE  
MZ세대 비켜!  
알파세대가 온다

52  
TREND  
과몰입에 진심인 사람들  
디깅모넨템

56  
CULTURE  
순수 예술 사진의 거장  
<프랑코 폰타나 : 컬러 인 라이프>

60  
SPACE  
잠깐 거긴 서해잖아!  
인천 해돋이 명소

## PLUS II AIRPORT ISSUE

64  
LIVE  
새로이 적는  
여행의 기록

68  
AIRPORT PEOPLE  
다시 여행하기 좋은  
시절의 ‘우리’에게

72  
ESG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자폐인 디자인 브랜드 오티스타

76  
SPOT  
출국 전 롤 한 판?  
‘라이엇 아케이드 ICN’ 오픈

80  
TIP  
인천공항 접근성에 낙조 감상은 덤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인천 에어포트’

82  
NEWS

86  
EVENT

87  
EPILOGUE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간행물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공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  
독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 가정에도 올 한 해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인천공항의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행정개선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경 재개방으로 인해 인천공항에 다시 항공기가 돌아오고, 적막이 가득했던 여객터미널은 이제 다시 여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 여객수도 12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이전의 절반 이상을 회복했고, 매일매일 가파른 속도로 예전의 인천공항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가만히 멈춰서 있지 않고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다양한 준비와 도전을 해왔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전 세계 공항의 고객경험 관리체계와 서비스 혁신활동을 평가하는 '고객경험인증제'에서 인천공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4단계 인증을 받는데 이어 작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최고등급 5단계 인

증을 받으며 세계 유일의 '5성급 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조만간 다가올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고자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제 막 공정률 50% 선을 돌파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한 해, 2023년은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 시기의 원년으로 공항의 궁극적인 지향 가치인 'Connect' 즉 연결의 의미와 역할을 강화하여 사람과 문화를 잇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항 본연의 기능을 되돌아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천공항의 재도약을 위해 추진해 나갈 올해의 주요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E ICN〉 공항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항공실적을 회복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본격적인 수요회복에 차질 없이 대

응하기 위하여 제1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을 착수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여 폭발적인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4단계 건설사업의 2024년 적기 완공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연간 여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글로벌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하여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메가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 세계 최정상 허브 공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물 세계 2위에 빛나는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화물 터미널 개발 추진 등을 통해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NEW ICN〉 新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찾는 이용객에게 최고의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패스, 교통약자를 위한 수하물 이지픽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ACI 고객경험인증 최고단계를 유지하며 고객경험 혁신을 선도하는 공항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여 한국형 공항 플랫폼을 수출하는 해외사업을 수주하고, 예술과 경제 그리고 지역을 아우르는 융복합 문화·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복합 랜드마크 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기 개조·정비단지 등이 집적되어있는 MR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 등의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ONE ICN〉 인천공항의 총 역량을 집중하여 항공산업 경쟁력 향상을 주도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X-Ray 판독 시스템 확대, 통합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 항공산업 안전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여 무결점 인천공항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ESG 현장을 선포한데 이어 공항운영 전력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민간분야 협업을 통한 성장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 성장에 기여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바다의 작은 섬을 메워 오늘날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기까지, 인천공항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혁신과 도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대에서 인천공항은 다시 한 번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공항으로서의 도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천공항의 새로운 도전에 올 한 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인천공항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사진제공: 인제비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가족 여러분!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배우 이제훈입니다.

인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 2023년 신년 특집호를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어느덧 지나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드라마 <여우각시별>을 계기로 인천공항과 인연을 맺게 된 지 어느새 약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도 했고, 현재는 제1여객터미널의 새 단장을 통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인천공항 일일 여객수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12만 명을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와는 달리 인천공항에 활기와 분주함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코로나 이전의 공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저 또한 인천공항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인천공항 가족들을 포함하여 많은 독자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인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에는 가보고 싶은 해외여행지 정보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과 항공산업 전반을 재미있게 조망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어 올 한 해에도 더 많은 독자분들께 사랑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신년에도 또 한 번 비상할 인천공항을 응원하며, 배우 이제훈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01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배우 **이제훈**



사진제공: 링크 by 스타쉽

<MORE & BEYOND>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배우 채수빈입니다.

2018년 드라마 <여우각시별>을 통해 명예홍보대사로서 인천공항과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3년, 계묘년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다시 찾고, 더 쉽게 여행의 설렘을 가질 것이란 기대감이 가득한 2023년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항이 설렘의 시작이자 아쉬움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인천공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행의 설렘과 아쉬움을 더 자주 가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부터 발행이 시작되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독자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천공항 <MORE & BEYOND>는 여행과 공항 그리고 여러 교양정보까지 다양하게 담아내며 독자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인천공항 매거진 <MORE & BEYOND>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여행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보내세요! 그리고 배우로서 또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로서 저 채수빈의 활동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1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 배우 **채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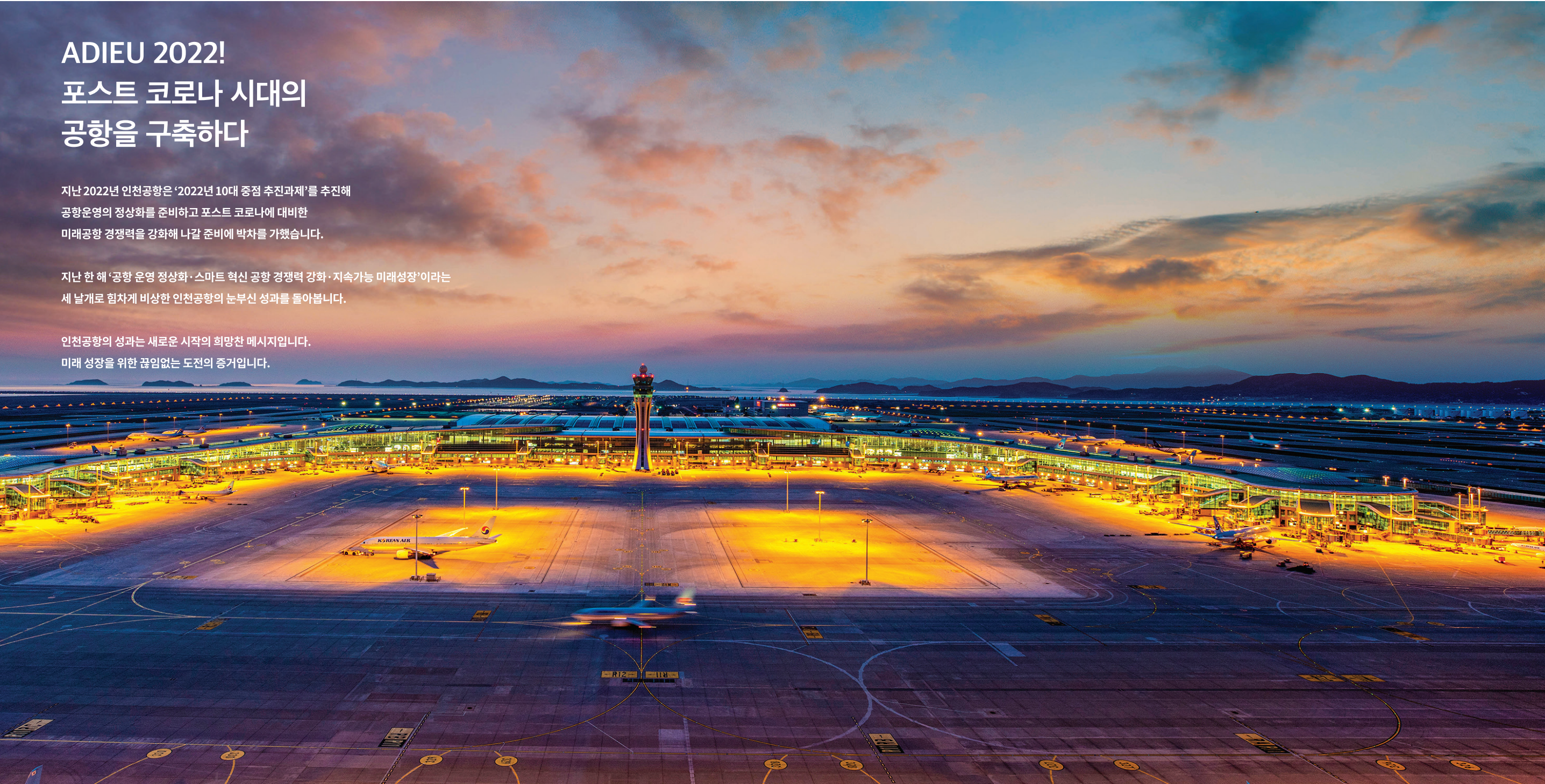


# ADIEU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항을 구축하다

지난 2022년 인천공항은 '2022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공항운영의 정상화를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공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공항 운영 정상화·스마트 혁신 공항 경쟁력 강화·지속가능 미래성장'이라는  
세 날개로 힘차게 비상한 인천공항의 눈부신 성과를 돌아봅니다.

인천공항의 성과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증거입니다.







## 다시, 인천공항 다시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해외 각국의 방역규제 완화, 항공기 운항 제한 해제 노력에 힘입어

인천공항 일일 여객수가 코로나 이후 최초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1월 21일 10만 명, 12월 4일 11만 명 돌파에 이어 12월 17일 12만 명을 돌파하며

여객회복 속도가 급격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은 공항운영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며

포스트 코로나 新 공항운영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 스마트 방역 기반 항공여객 수요를 조기 회복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선제적인 총력 대응으로

‘K-공항방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여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항이용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센터 확충, 코로나 검사 전용 웹 개발로 검사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스마트 방역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공항협의회 ‘공항방역인증’을

2년 연속 성공적으로 갱신하였고,

태국 치앙라이, 베트남 푸꾸옥 공항에 공항방역 컨설팅을 시행하며

K-공항방역의 위상을 입증하였습니다.



ADIEU 2022

2 스마트 혁신 공항 경쟁력 강화



## 세계 유일, 세계 최초 5성급 공항 최고의 고객경험을 선사합니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하는 고객경험인증제에서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하게 최고단계인 5단계를 획득하며 '5성급 공항'으로 등극했습니다. 고객의 경험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천공항은 최고의 공항 운영 노하우로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합니다.



## 미래 공항의 기준, 그 이상의 스마트 혁신 공항을 향해 한 발 더 앞서갑니다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원형검색장비, CT X-ray 등 최신의 보안검색 장비를 갖춘 '인천공항 스마트 보안검색장'이 구축되었고,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식음료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며 내일의 공항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은 또 한 번 혁신을 이루어내며 미래공항의 가치를 리드합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저탄소·친환경 공항을 만들어갑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선도적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리더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공항 최초로 글로벌 RE100 가입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향후 공항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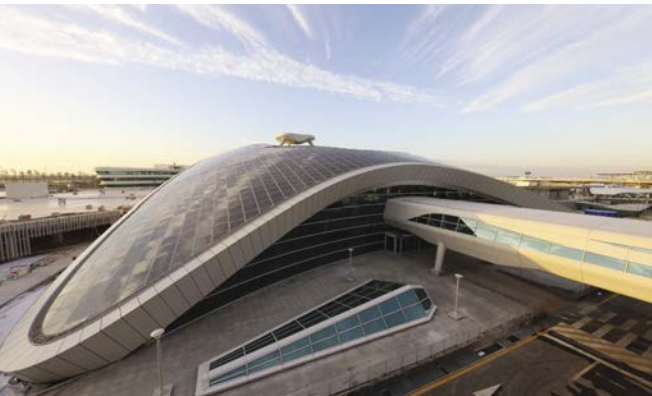


### ESG 경영 로드맵을 통하여 선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인천공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ESG(친환경,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앞장서기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ESG 현장'을 선포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 100% 친환경 전환, 일자리 약 3만개 창출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경영 전반에서 ESG를 실천하는 인천공항은  
ESG 경영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 나갑니다.



인천공항 청년 스타트업 식음매장



제2교통센터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발전

# RE100





# HELLO 2023, HELLO FUTURE ICN

## ReNewOne 2023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공항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며 미래를 개척하고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써온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위대한 날갯짓을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ReNewOne 2023,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공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Re, New, One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2023년 인천공항은 공항 본연의 기능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합니다.

글로벌 공항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인천공항의 빛나는 미래를 누리세요.

### Re ICN

공항 본연기능 강화 및  
항공/경영실적 회복

### New ICN

新기술 도입 및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미래  
경쟁력 확보

### One ICN

전사적 역량 집중하여  
항공산업 경쟁력 향상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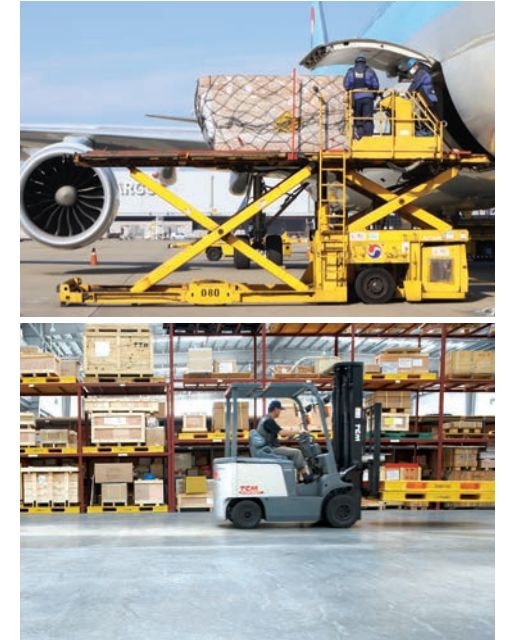
HELLO 2023, HELLO FUTURE ICN

## Re ICN



## 전략적인 수요촉진을 통해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재도약합니다

항공 네트워크 증대를 위한 항공 마케팅을 강화하고,  
물류단지 투자 및 화물항공사 신규 유치를 추진하여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 고객 중심의 공항 본연기능 강화로 수요회복에 대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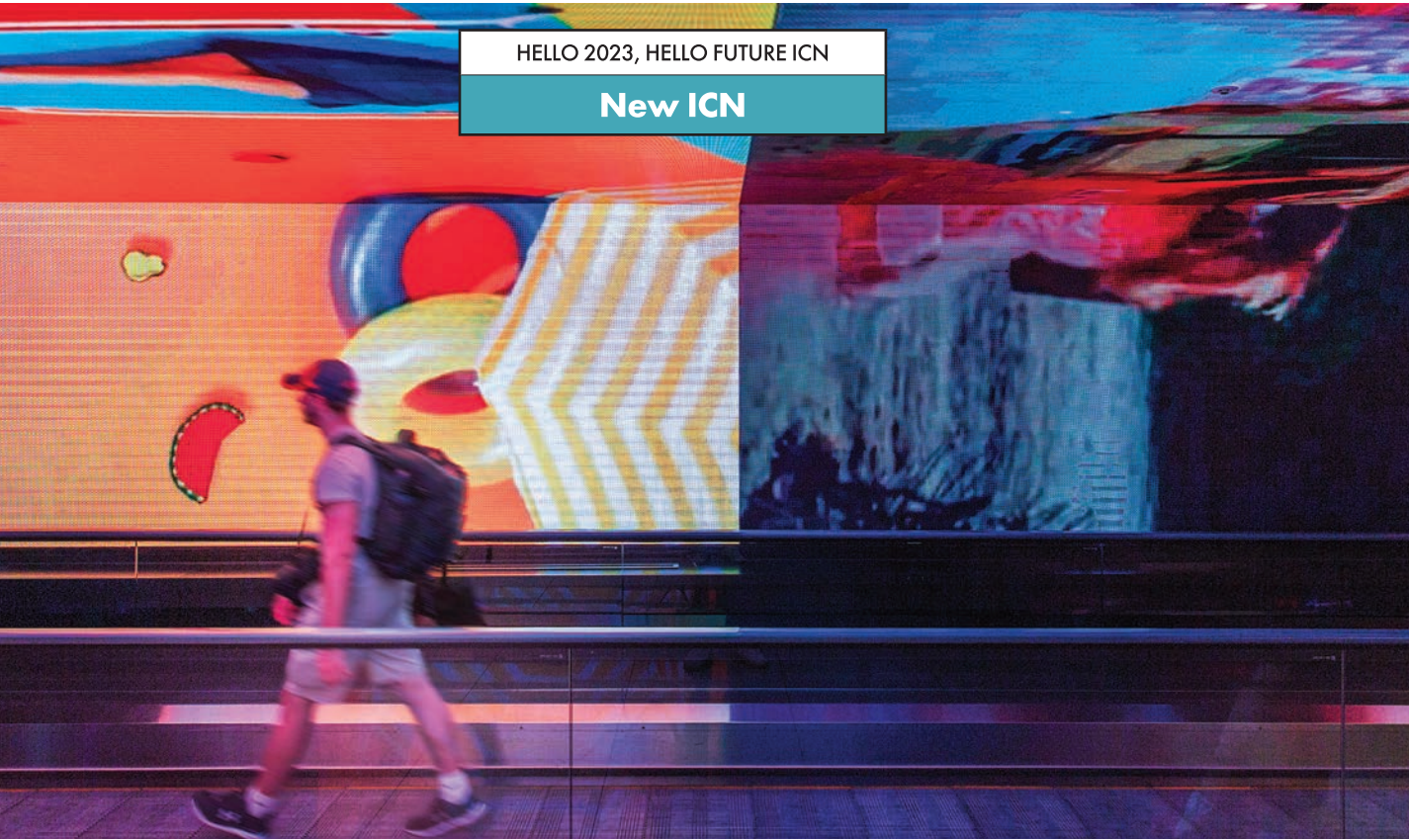
가파른 여객 수요회복 대응을 위하여 여객터미널 시설을 개선하고  
향후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위한 4단계 건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HELLO 2023, HELLO FUTURE ICN

New ICN



##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새로운 여객경험을 제공합니다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패스,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서비스 등 차별화된 여객 경험을 제공하여 새로운 공항 서비스의 표준을 마련합니다.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인천공항 미래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여 대한민국 공항영토를 확장하고, 예술과 경제, 지역을 아우르는 융복합 문화·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합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감도



첨단복합항공단지 조감도



## 여객이 안심할 수 있는 공항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AI와 3D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큐리티 시스템, 미래형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확대·운영 개시하여 더욱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어나갑니다.



CTC APRON  
2.175MHZ

← R1 A11 R11 ↑ R1 →



# Incheon Airport



## 공동체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역할을 강화합니다

민간분야 성장 적극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경영을 실현하여 대표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합니다.



## ‘별 다섯’ 인천공항의 서비스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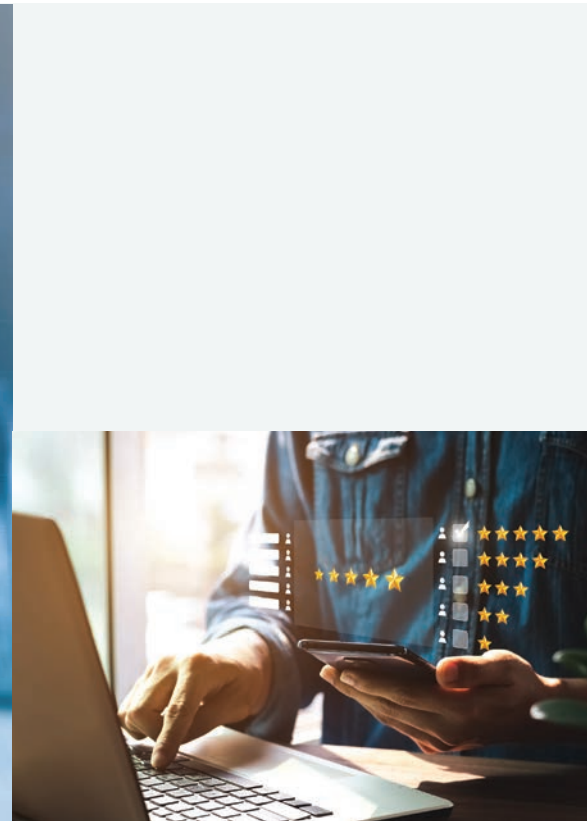
글.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당신이 지금 팔고 있는 게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라 (Make sure you are really selling what the customer wants to buy)” 1980년대 초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스칸디나비아항공(SAS)의 CEO로 갓 취임한 안칼슨 (Jan Carlson)이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당시 39세 나이로 그루네 계열사 사장으로 발탁된 그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서비스 접점에 집중했다. 서비스 중심으로 조직을 뒤집어서 고객을 상대하는 일선에 권한을 부여하고 본사의 기능을 지휘부가 아닌 서비스 현장의 병참부서로 바꿨다. 전화 예약부터 출발 공항의 체크인, 기내탑승, 도착지 공항을 떠날 때까지 승객의 모든 경험을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 MOT)’이라고 불렀다. MOT란 고객이 경험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이게 축적되어 전체의 서비스 품질을 결정한다.

“우리 회사는 하루에 5만 번씩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다. SAS는 당신이다. 고객의 느끼는 모든 순간엔 당신이 곧 회사다.” 정해진 틀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고객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판단해 스스로 대응하라는 이 메시지에는 업무처리를 놓고 고객과 회사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판단해야 할 순간엔 망설임 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방침이 담겼다. 회사가 변하는 데엔 불과 일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연중 현장을 돌며 실패한 안칼슨의 경영철학이 전사적으로 공유된 덕분이다. 젊은 CEO의 신경영으로 회사는 불과 이듬해 흑자로 전환했고, 그해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되었다. 탁월한 정시운항으로 ‘비즈니스맨의 항공사’라는 명성도 얻었다. 서비스 혁명의 신화가 탄생한 것이다.





**글쓴이 허희영**은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으로 항공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항공경영학』이 있으며, 그 외에도 『항공우주산업』, 『항공서비스원론』 등이 있다.

SAS의 혁신은 오늘날의 CS 경영과 서비스 경영이론의 실증적 토대를 제공했고, 이때부터 업계는 고객가치와 고객 기대, 그리고 서비스품질의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북유럽 항공사의 서비스 혁명이 미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MOT는 고객 경험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탁월한 서비스조직의 특성을 규명하는 학계의 노력으로 서비스 경영의 개념은 1980년대 짧은 기간 동안 독립된 학문적 영역을 구축했고, 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주차장, 매표소, 옷 보관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콘서트 무대에서 벌어지는 연주만큼이나 고객의 만족과 유지에 중

요한 요소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요소가 고객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도록 하는 게 바로 ‘고객경험관리’의 핵심이다. 찾아간 맛집에서 대기표를 받고 문간에서 삼십 분을 기다려야 했다면 고객 경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다. 서비스의 접점은 비즈니스가 무대에 올려져 연출되는 현장이다. 무대 뒤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수록 무대가 빛난다.

단순 반복적 업무들이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공항은 수많은 접점마다 서비스가 연출되는 무대다. 이용객의 만족도는 공항을 드나들면서 무대의 접점마다 경험하는 ‘진실의

순간들’로 결정된다. 그런 면에서 인천공항의 성과는 눈부시다. ACI의 공항 서비스 평가(ASQ) 1위를 12년 연속 달성한 진기록 이후 코로나19의 역경 속에서 또 신기록을 세웠다. 호텔 등급처럼 ‘별 다섯 개’ 만점으로 평가하는 ‘고객경험인증제’를 2019년 도입한 ACI가 작년 9월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5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 서비스 전략을 세우고 패키지를 구성해 협업으로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이 방식엔 혁신과 차별화가 핵심이다.

고객의 욕구와 기대는 번덕스럽고 늘 진화한다. 항공교통의 대중화 덕분에 여행객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불만은 오히려 줄지 않는다. 한층 고도화되고 풍부해진 서비스를 놓고 그 평가엔 오히려 인색해지는 ‘서비스의 역설(逆說)’이다. 경험한 서비스에 익숙해진 고객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성적 만족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열해지는 공항 간 경쟁에선 그동안 신속성과 처리용량 같은 요소만으론 승부 내기 어렵다. 기대를 뛰어넘는 진실의 순간들을 고객이 경험토록 하는 게 경쟁력이다. 인천공항이 향할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 공항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으로 이니셔티브를 쥐는 일이다. 당장 올해 인천에서 열린 제5회 ‘고객경험 글로벌 씨앗’은 이 도전을 선언할 기회다. 🍀



## 국경과 국경 사이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 공항이라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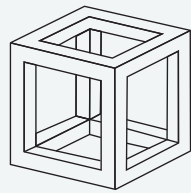
유현준 건축가는 공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퀀스(Sequence)는 결국 ‘행복한 순간’으로 흐른다고 말한다.

기다림의 기쁨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설렘이 교차하는 공간.

살아가는 동안 이처럼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공항은 그래서 특별하다.

여행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 지금, 새로운 떠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를 만났다.

글. 박채림 사진. 유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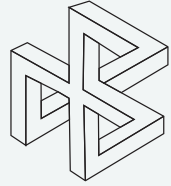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에서  
“21세기의 땅끝은 해남이 아니라 국제공항”이라는 말을 쓰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공항에 가기 전까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기에 공항은 기대감에 찬 공간이다. 공항에서는 화난 표정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다. 비싼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는 곳이자, 내가 선택한 도착지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그들이 느끼는 설렘과 행복은 비슷하다. 비행기를 경계의 문지방이라고 치면, 좁은 공간에 앉아 몇 시간을 날아 다른 세상에 떨어지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또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육로로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불가능하고, 배편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공간은 항상 사람의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그렇다면 인천공항은 어떤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항은 '편안한 플랫폼' 같은 공간이어야 한다. 이는 현대 건축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항은 다른 도시와의 연결점 역할을 한다. 영종도에 있지만 파리나 뉴욕, 로마, 카타르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지역성을 가지기 어렵다. 특정한 캐릭터나 스타일을 강조하기보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마치 스마트폰 스크린과 같달까? 앱이 가득 차면 지우기도 하고, 새로운 위젯을 설치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이든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인증과 국적의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쉬고 때로는 문화를 즐기기도 하는 곳. 실제로 환승하는 누군가에게는 공항에서 머무는 잠깐의 시간이 나라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 공항 스스로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본다.

**팬데믹 이후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 자체가 곧 '위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안전하게 살아남으려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사실 이런 거리두기가 도시의 동력이나 시너지를 떨어트리는 작용도 한다. 사람이 살면서 공동체로서 느끼는 가치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ott와 같은 매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소비도 개별화됐다.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특히 공항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두려움 혹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람만 보이는 트인 공간 안에 다른 요소가 들어와야 한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해답은 자연이다. 만 평의 공간에 만 명이 머무는 터미널이라면, 공간을 늘리고 그 안에 나무를 들이면 어떨까. 사람이 자연과 섞여 있으면 사람만 보이는 현상이 해소되고 공간의 캐릭터가 달라진다. 단순히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거나, 모여있는 사람을 줄이는 일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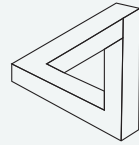


우리는 여행을 하며 낯선 경험과 사람, 감정을 통해 무심히 지나치던 익숙함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새로운 감각을 터득하는 방법이자 뜻밖의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여정.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에 공항이라는 플랫폼은 특별하다.  
땅끝을 넘어서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 닿을 수 있을까? 경계가 주는 설렘이 우리를 매혹시킨다.

**인터넷 세상도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다면  
건축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될까?**

물론이다. 우리가 가진 공간의 문제를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는 80억 명을 기록했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개인에게 필요한 공간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지구 면적은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한다. 우주에서 새로운 살 곳을 발견해내는 일보다 훨씬 저렴한 방법이다. 쇼핑과 같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만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다면 건축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게 될 거다. 다만 공항의 메타버스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언어와 인종이 섞이기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공간이 궁금하다.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축가로서 더 많은 사람과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런 마음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 아닐까. 마르코폴로는 목숨을 걸고서야 탐험가가 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시공간 개념이 바뀌고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더 좋은 공간, 건축물을 발견하면서 달라지는 공간과 그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싶다.

### 건축가로서 다양한 작업과 저술을 이어오고 있다.

####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가.

최근 초록을 완성한 책이 있다.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는 건물을 꼽아서 그 건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닌, 생각을 바꾸는 공간들이 있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즉 창의적인 사람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삶의 답을 찾아준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저술이나 방송을 통해 늘 '공간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쟁이나 문명이 아닌 공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하고 있다. 더불어 건축가로서는 사람이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 혹은 복잡한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멋있는 건축물보다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다.

### 2023년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건축가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평균 5년 여가 걸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려 한다. 더불어 책 쓰는 일은 건축주의 요구나 예산 혹은 행정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유튜브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다. 긴 호흡의 책과 달리 짧은 호흡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미국 동부와 남부로 무대를 옮겨 유튜브를 통해 평소 가보고 싶었던 도시와 건축물을 보여드리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당분간은 더욱더 공항에 많이 가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럴 계획이다. ☺



**건축가 유현준**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및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Hyunjoon Yoo Architects) 대표 건축가로 하버드 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경험했으며,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및 MIT 교환교수(2010)로 있었다. 2017년 시카고 아테나움 건축상, 독일 디자인 어워드, 아시아건축가협회 건축상, 아시아 시티스케이프 어워드, 서울시 건축상 등 각종 국제 및 국내 건축상을 수상했다.



## 2023년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나요?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입국 전과 검사 중단’ 이후 해외 출국 의향 심리에 대한 고객 의견을 들어보았다.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부터 출국하는 이유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어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조사규모: 만18세 이상 내국인 중 최근 4년 이내 인천공항 출국경험자 1,000명

조사기간: 2022.6월 및 9월 /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



###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전

### 해외출국 의향 및 시기

###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후



### 국제선 항공권 예약 및 구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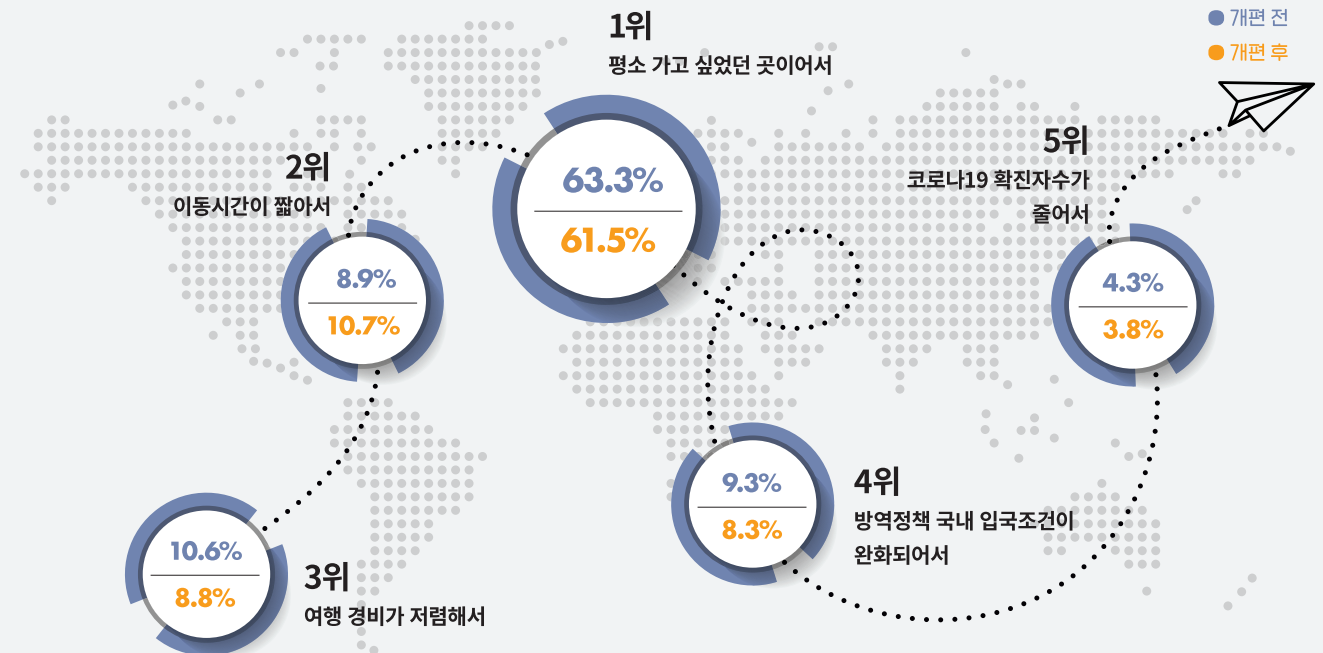
###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전

###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후



### 해외 출국하는 이유 Top5





## 하얀 낭만의 도시 오타루



하얀 눈의 도시, 영화 <러브 레터>의 무대, 시계탑이 증기를 뿜어내고 오르골 소리가 붉은 탐을 돌아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메르헨의 거리, 어둠이 내리는 운하를 따라 가스 등이 노랗게 불을 밝히는 노스텔지어의 풍경. 겨울의 오타루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이다.

글. 최상희 여행작가



**하얀 눈의 도시, 메르헨의 풍경**

영화에서 본 한 장면 때문에 떠나는 여행도 있다. 영화 <러브 레터>의 촬영지인 오타루에는 흐린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처럼 아름답게 그리운 첫사랑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 영화 <윤희에게>의 주인공들이 재회한 곳은 바로 오타루 운하 다리 위였다. 이 아름다운 영화들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하얗게 눈 덮인 오타루의 풍경, 오타루가 겨울 여행지로 각광 받는 이유다. 삿포로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오타루는 과거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일찌감치 운하가 만들어졌고 홋카이도 최초로 철도가 놓였다. 무역선과 열차는 더 이상 다니지 않지만 운하와 철도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남아 오래된 건물들과 어우러져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언제 찾아도 아름답지만, 겨울의 오타루는 고요하게 아름답다.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어쩌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여행의 시작은 바닷가를 달리는 열차**

JR열차 급행 편으로 신치토세공항에서 1시간 20분, 삿포로역에서는 30여 분이면 오타루에 도착한다. 지정석 표를 구매할 경우, 오른쪽 창가 자리를 선택하면 가는 내내 창밖으로 하얗게 파도가 부서지는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기차가 푸른 바다를 따라 달릴 때 차창으로 날아드는 하얀 눈은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내릴 역은 오타루 역이나 미나미오타루 역에 내리면 되는데, 미나미오타루 역에서 내려 메르헨 사거리부터 사카이마치도리까지 천천히 둘러본 뒤 해 질 녘에 운하에 도착하는 일정을 추천한다. 어스름 속에 가스 등이 반짝 켜지는 순간은 놓쳐서는 안 될 마법처럼 매혹적인 장면이다.

**노스텔지어의 멜로디, 오르골당**

메르헨 교차로에 서 있는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은 오타루



1. 오타루역 승강장  
2. 오타루 LETAO 본점에서 본 풍경  
3. 오타루의 오르골 박물관



오르골당 본관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조도는 낮고 스테인드글라스 창으로 스며든 빛이 짙은 나무 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매우 널찍한 곳인데도 다락방처럼 아늑한 느낌이 든다. 어둑한 곳 가득 맑은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각양각색의 오르골이 영롱히 빛난다. 1912년에 지어진 건물은 원래 쌀 저장고로 쓰였는데 오르골당으로 개조되어 유명 캐릭터를 본뜬 모양부터 고가의 클래식 오르골까지, 1만여 점이 넘는 오르골을 전시 판매한다. 오르골당 앞의 커다란 증기 시계 역시 도시의 명물. 15분마다 시계가 증기를 내뿜고 은은한 멜로디를 연주하면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활짝 웃는다.





1. 메르헨 광장
2. 사카야마치도리 쇼핑 거리
3. 오타루 카이센동
4. 오타루 눈빛거리축제

**글쓴이 최상희** 소설을 쓰는 틈틈이 여행하고 출판사 '해변에서 랄랄라'를 운영하며 여행책을 쓰고 만든다. 여행에세이 『빙하 맛의 사과』, 『숲과 집』, 『여름, 교토』, 『북유럽 반할지도』, 『홋카이도 반할지도』 등을 썼다.



### 치즈케이크의 성, 달콤한 디저트의 거리

메르헨 사거리를 동화적인 풍경으로 만드는 붉은색 탑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과자 브랜드, 르타오 본점이다. 유명한 더블프로마주 치즈케이크를 비롯해 다양한 디저트를 2층 카페에서 커피와 즐길 수 있고 탑 꼭대기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면 창 너머로 눈 덮인 아름다운 거리가 내려다보인다. 이웃해 있는 기타카로와 룯카테이 매장도 그냥 지날 수 없다. 기타카로의 명물은 바움쿰헨과 홋카이도 해산물로 만든 센베 과자, 특히 마루세이 버터샌드로 유명한 룯카테이는 포장도 아름다워 선물용으로도 좋다. 메르헨 교차로부터 오타루 운하까지 이어지는 약 1키로미터의 거리 사카야마치도리는 오래전 유리 공업이 번성했던 곳으로 지금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유리공예점과 기념품 가게 사이로 과자점이 즐비해 그야말로 행복해지는 거리다. 짙은 색 목조 건물,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 수증기로 부어진 유리창, 가게 앞의 커다

란 눈사람, 사박사박 눈을 밟으며 걷자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풍겨 온다.

### 미스터 초밥왕의 고향, 오타루의 맛

오타루는 예부터 근처 타카시마 항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초밥이 유명했다. 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무대가 될 정도. 명성이 이어져 미술랭 스타를 받은 곳부터 홋카이도 최고의 회전초밥 체인점들까지, 유명한 스시집이 즐비하다. 오타루 운하 근처 약 2백 미터 거리에 수십여 개의 스시집이 모여 있는 스시 거리도 있다. 운하 맞은편에 있는 데누키코지는 1930년대 오타루 옛 거리를 재현한 골목으로 홋카이도의 명물 간식과 음식을 파는 식당과 선술집, 기념품 가게 등이 좁은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어 요기하기도 좋고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다. 옛날 화재 감시 망루를 재현한 히노미야구라 탑에 오르면 오타루 운하가 한눈에 펼쳐진다.

### 반짝, 하고 빛나는 마법의 순간

산업 쇠퇴로 한때 매립될 위기에 처했던 운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유지되어 관광지로 탈바꿈하며 오타루의 상징이 되었다. 무역선 대신 관광객을 태운 작은 크루즈가 잔잔한 수면을 가르고 창고로 쓰였던 운하 주변 건물들은 레스토랑과 카페, 공방 등으로 근사하게 변모했다. 해가 저물 무렵 운하 주변으로 사람들이 어쩐지 설레는 표정으로 모여든다. 유명한 운하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다. 멀리 하늘이 붉어지며 운하를 흐르는 물이 연한 오렌지색으로 물든다.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리고 가스 등이 일제히 불을 밝히자 또 다른 동화의 세상이 고요히 열린다. 신선한 공기가 땀을 스치고 노란 빛줄기를 따라 하얀 눈송이가 살며시 떨어진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마법 같은 순간 때문 아닐까.



# 테마파크야, 공항이야? 신치토세공항



하얀 눈의 고장, 홋카이도 여행의 시작이자 종착점인 신치토세공항.

홋카이도 제1 공항답게 이용객들로 붐비고 영화관과 온천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신치토세공항은 머무는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게 좋다. 눈 축제 기간이면 입출국 심사대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하지만 공항 내에 즐길 거리가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기 십상이다.

글. 최상희 여행작가



## 홋카이도 여행의 관문

인천공항에서 신치토세공항까지는 비행기로 약 2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삿포로 남동쪽에 위치한 신치토세공항은 홋카이도 제1 공항으로 홋카이도 내 주요 지역과 일본 국내 주요 도시는 물론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의 국제선을 운항한다. 신치토세공항은 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이용객 수가 많은 공항이고 특히 하네다 공항과 신치토세공항을 잇는 국내선 노선은 일본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다. 그래서인지 신치토세공항은 국제선 여객터미널보다 국내선 터미널이 훨씬 크고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다.

## 테마파크 부럽지 않은 스마일 로드

국내선과 국제선의 3층 연결 통로인 스마일 로드는 그야말로 절로 웃음과 탄성이 나오는 곳이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초콜릿 브랜드인 로이스의 '로이스 초콜릿 월드'는 유리창 너머로 제작 과정을 볼 수 있고 세계의 초콜릿을 모아 전시한 박물관도 함께 있으며 숭에서는 공항 한정 상품을 살 수 있다. 핑크색으로 꾸며진 '헬로키티 해피 플라이트'는 헬로키티와 산리오 캐릭터 제품을 만날 수 있고 '도라에몽 와쿠와쿠 스카이 파크'에는 기념품점과 카페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홋카이도 유명 먹거리가 총망라

국제선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내선 터미널 2층 매장에는 홋카이도의 먹거리와 특산품이 총망라되어 있다. '스위츠 에비뉴'에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과자 브랜드 매장이 모여 있다. 특히 맛있기로 이름난 홋카이도산 우유를 이용한 유제품, 우유카스테라와 치즈타르트, 푸딩, 아이스크림 등은 꼭 맛보아야 할 별미다. 3층에는 홋카이도의 유명 라멘 전문점을 비롯해 초밥과 해산물덮밥, 징기스칸, 스프카레 가게 등 홋카이도 전역에서 이름난 식당들이 입점해있어 여행 중 미처 맛보지 못한 음식이나 다시 먹어보고 싶은 요리를 먹으며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



## 공항에서 이동시 교통편

### ① JR열차

JR열차는 국내선 쪽에 있기 때문에 연결로를 이용해 국내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 바로 이정표가 보이는데 왼쪽에 무빙워크가 있고 직진하면 JR열차를 탈 수 있는 곳이 나온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JR 신치토세공항역이 나오고 이곳에서 탑승권을 구매해 이용하면 된다.

### ② 공항버스

공항버스를 이용하려면 1층 바닥에 빨간 버스 정류소 안내 유도길을 따라 이동하면 된다. 버스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근처에 티켓 자판기에서 버스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삿포로 시내까지 70분 이상 소요된다. 주변 관광지인 조잔케이 온천, 시코쓰 호수, 노보리베쓰 등으로 가는 직행버스도 공항에서 출발한다.

### ③ 렌트카

국내선 터미널 1층에서 본인이 예약한 업체의 카운터를 찾아 예약자 이름을 말하거나 예약확인서를 보여준 후 카운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셔틀버스를 타고 영업소로 이동하면 된다. 보통 공항에서 차로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



## MZ세대 비켜! 알파세대가 온다



2010~2024년 태어난 알파세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10대에 진입하는 이들이 벌써 차기 소비 집단이자 인재 집단으로  
사회와 환경 이슈를 선도하는 활동가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알파세대란?

태어나 말한 첫마디가 '엄마'가 아닌 '알렉사(Amazon에서 제작한 인공지능 비서)!'였다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1995~2009년생을 일컫는 Z세대의 다음 세대, 2010년생 이후에 태어나 14세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알파세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X-Y-Z를 잇는 알파벳이 없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알파세대라고 명명했는데, 단순히 A가 아니라 알파라 이름 붙인 것이 의미심장하다. 단순히 Z세대의 다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은유한다. 알파세대는 신세대의 기수인 19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으며, COVID-19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 알파세대의 정체성과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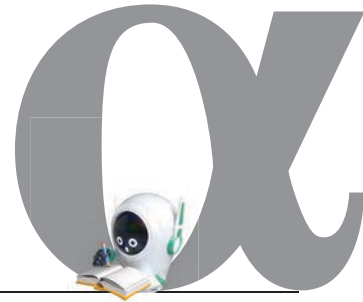
**첫째, 알파세대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나 엄청난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달리기를 잘하든 배드민턴을 잘 치든, 자기만의 영역에서 하나만 잘해도 인정해준다. 개인이 각자 지닌 기질과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알파세대의 이러한 성향은 10대를 중심으로 틱톡이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구독자 중심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워 인플루언서가 장악해 10대들이 진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틱톡은 추천을 기반으로 한 '포유(For You) 페이지'가 첫 화면이다. 일단 노출되면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 무명의 틱톡커가 '벼락 스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셀레브리티'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둘째, 알파세대 교육이 이전 세대와 가장 다른 점의 하나는 코딩교육이다.** 실제로 2022년 8월, 정부는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등 교육 과정 이상의 내용도 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향도 중요하게 다룬다. 초등학교 정보 선택과목 도입, 중고교 개설과목 확대,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 등의 과정을 통해 결국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사교육 시장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독서코딩'이 대표적인데, 이야기 속에 포함된 다양한 코딩 소재를 통해 교과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해력과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 논리에 밝은 밀레니얼 부모들은 단지 학업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능력, 경제나 투자에 대한 교육에 열심이다. 이는 아이들의 투자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제는 용돈을 주는 대신 주식을 사주는 부모와 조부모의 사례가 낫설지 않다.



**글쓴이 이수진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에서 소비문화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트렌드코리아』,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9만 1,000개, 2022년 1분기에만 1만 7,000개의 새로운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개설됐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경제 학습도서 판매가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2022년에 출간된 어린이 경제학습서는 약 50종으로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판매량도 89%나 증가했다. 아동 서적 중에서 『세금 내는 아이들』이 종합 베스트셀러 58위를 차지했던 것도 인상적이다.

## 저출산 시대의 귀한 자식들

알파세대는 자기중심성이 매우 높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정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자라난 것에는 역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크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초등학생 수는 드라마틱 하게 줄었다. 가장 과밀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한 반의 아이들은 30명 미만이다. 60명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로 뺑뺑이 채워졌던 공물 교실에서 2~3부제 수업을 받으며 자란 기성세대에게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과거처럼 4~6명 혹은 그 이상의 대가족에서 자라고, 큰 학교에서 많은 인구가 함께 교육받는 여건에서는, 개인보다는 전체가 중시될 수밖에 없고 타인과의 비교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가장 보편화된 가구 형태로 자리한 지 오래고, 출생인구가 사망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다. 줄어드는 학령 인구수와는 달리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소비구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의 역설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8포켓\*, 10포켓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8개든 10개든 온 집안의 어른들이 하나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에서 알파세대가 높은 자기중심적 성향을



띠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알파세대의 시사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개근 거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고 한다. 성실함의 표상이었던 개근이 이제는 해외여행을 못가 본 가난의 표시가 됐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인 알파세대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이전 세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 알파세대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한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최근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22위로 꼴찌라고 한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 새로운 어린 세대의 행복에 부모와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알파세대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일 테니 말이다. 📌

\* 8포켓이란? 알파세대는 부모와 양가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총 8명이 한 아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8개의 주머니(8 pocket)', 더 나아가 10포켓을 가진 골드 키즈라 부른다.



## 과몰입에 진심인 사람들 디깅모멘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 당연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몰두는 조금 특별하다.

최근 유행하는 ‘~에 진심’, ‘과몰입’이라는 말이 대변하듯 과도한 몰입을 통해  
자기를 찾고, 발견하고, 표현하고, 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디깅모멘텀’이라 한다.

글.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 DIGGING MOMENTUM



### 행복의 과몰입, 디깅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에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괴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몰두의 대상이 다소 특이하고 그 몰입의 정도가 꽤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누구보다도 삶에 열심이다. 이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모멘텀(Digging Momentum)’이라 할 수 있다.

디깅은 ‘파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Dig’에서 왔다. 그래서 디깅은 본래 ‘파기’, ‘채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최근 다른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찾아내고 유행 음악의 동향을 분석하는 아티스트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로 디깅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다. 모멘텀(Momentum)은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주로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주가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 혹은 전환점”이라는 확장된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이처럼 디깅 행위가 단지 깊은 취미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효능감, 나아가서는 행복을 찾는 계기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디깅이 행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디깅모멘텀’이라 한다.

### 디깅모멘텀의 유형

디깅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컨셉형은 몰입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컨셉에 열중하는 경우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과몰입 공부법’이 인기다. 공주 컨셉, 헤르미온느 컨셉, 로스쿨 컨셉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들의 과몰입은 디테일까지 맞춘 컨셉을 되뇌며 자기암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 “나는 공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백성들이 편안해진다”고 스스로 컨셉을 주고, 공주에 어울리는 옷-머





어쩌면 우리의 디깅은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디깅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 것인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문제는 일상과 디깅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리따·실내소품·음악·ASMR(백색소음) 등을 갖춘 후 공부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몰입의 핵심은 ‘컨셉’이다. 몰입이 가능한 그 컨셉을 통해 좀처럼 집중하기 힘든 공부지만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② **관계형은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몰두의 정도를 높이는 경우다.** 자신을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덕후’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을 ‘덕밍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취향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온라인 세상의 익명성에 용기를 얻어 숨겨 왔던 자신의 취향을 조심스레 ‘덕밍아웃’ 했을 때 최고의 장점은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낼 수 있고, 나아가 그들과 서로 호들갑 떨며 함께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며 함께 특정 대상에 몰입하는 경우를 ‘관계형 디깅’이라고 한다.

③ **수집형은 특정 물건이나 경험의 수집을 통해 만족과 과시를 추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수집품에는 한때 유행했던 팝잇(pop-it,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뽁뽁이 형태의 손 장난감)부터 스타벅스 굿즈, 야구글러브, 껌종이, 몬스터 음료수캔, 수석(水石)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품목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문화가 낯선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그 수집의 다양성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이제 수집 콘텐츠는 트위터나 유튜브 등에서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으며 ‘자랑대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1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은 자신의 ‘진짜 광기’가 어린 수집품을 자랑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례로 구독자 15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혜안’의 ‘방 자랑대회’에는 무려 3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개구리 인형·장식품·양말·가구 등을 모은 사례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다.

### 디깅모멘텀의 배경

시간이 지날수록 디깅모멘텀 트렌드가 강해지는 이유로 먼저 몰입 자체가 갖는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몰입(Flow)’의 개념을 정립한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에 따르면, 자신이 몰입해 있는 일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믿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한다. 자기목적적인(Autotelic) 사람만이 삶 자체를 여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여 행복을 충전한다면, 다음날의 스트레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근성이 생기는 것이다.

### 디깅모멘텀의 시사점

디깅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키덜트(Kid+Adult, 성인용 장난감) 등 관련 산업도 함께 크고 있다. 나아가 디깅러들의 입소문 힘(Viral Power)이 커지면서 일반 산업에서도 마케팅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디깅은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디깅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 것인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문제는 일상과 디깅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단지 순간적인 기쁨을 줄뿐인 ‘쾌락’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심리적 자산을 형성하는 ‘몰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쾌락은 생리적 포만감을 지향하는 반면, 몰입은 심리적 성장을 지향한다. 그렇다. 핵심은 성장이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 아래에서 삶과 조화시킬 수 있을 때, ‘디깅’은 인생의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순수 예술 사진의 거장 〈프랑코 폰타나: 컬러 인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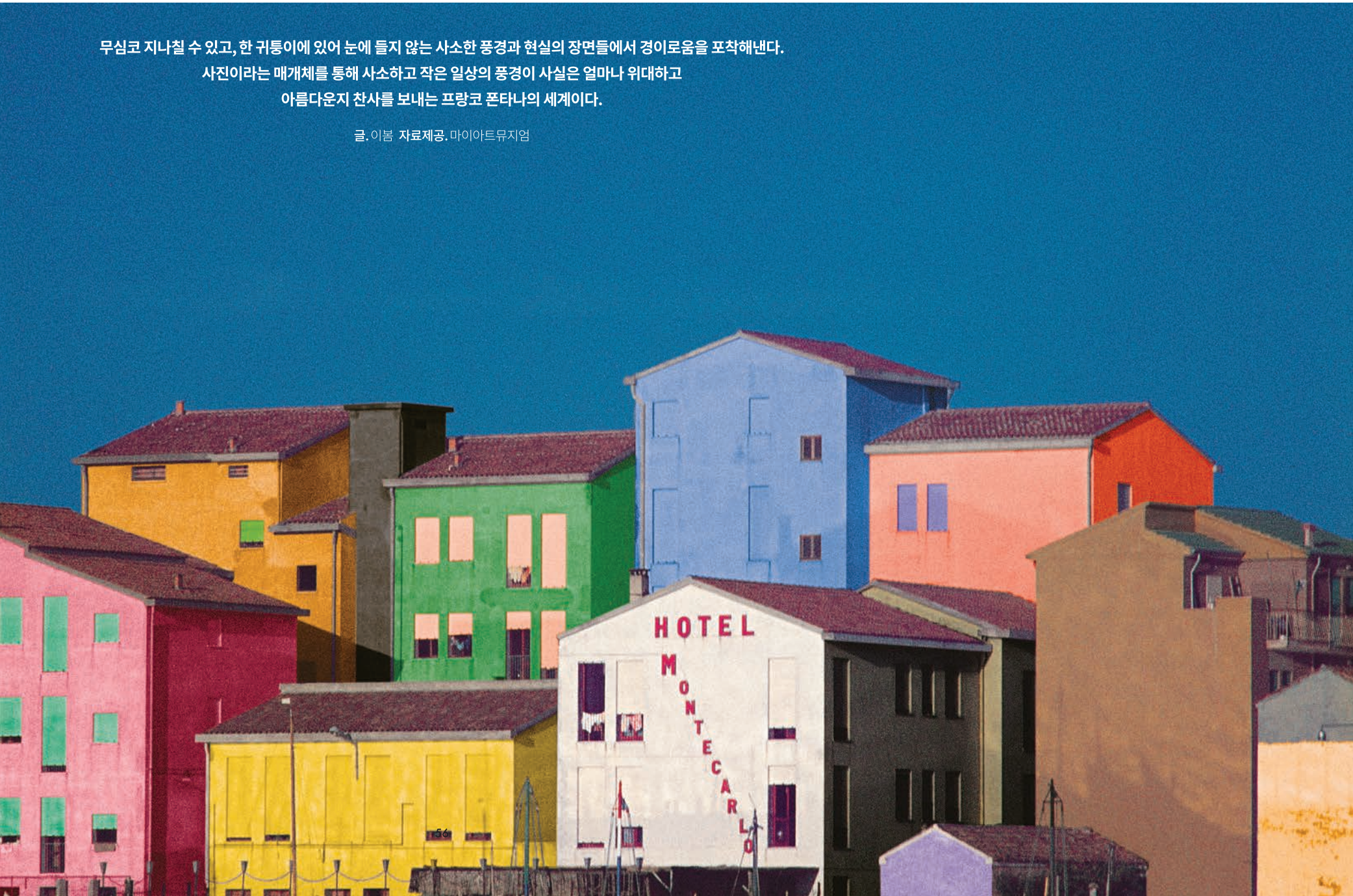


FRANCO FONTANA © PELLESTRINA 1975 VETZ

무심코 지나칠 수 있고, 한 귀퉁이에 있어 눈에 들지 않는 사소한 풍경과 현실의 장면들에서 경이로움을 포착해낸다.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풍경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찬사를 보내는 프랑코 폰타나의 세계이다.

글. 이봄 자료제공. 마이아트뮤지엄



### 프랑코 폰타나 한국 최초 회고전

“풍경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풍경이 되어야 하고, 풍경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 -프랑코 폰타나-

컬러 사진의 선구자인 이탈리아 사진작가 프랑코 폰타나의 한국 최초 회고전이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진행 중이다. 프랑코 폰타나는 1960년대 초반 흑백 사진의 관습을 벗어난 순수 예술 사진작가가 거의 없었을 때부터 컬러 필름을 받아들였고 사진의 투명도를 과소 노출하여 한 폭의 회화 작품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만들었다. 기존 스타일과 관행으로부터의 단절은 전후 이탈리아 사진 역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다.

프랑코 폰타나에게 풍경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다. 일상의 모든 찰나가 그에게는 풍경이 된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이 폰타나의 예술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색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삶을 구성하는 모든 일상을 풍경으로 인식하는 그가 컬러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폰타나는 대상이 사물, 장소 혹은 사람이든 삶의 풍경 속에서 매혹적인 부분과 대비를 발견할 줄 알고 그것을 색과 구도의 관계로 정제한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보다 미묘하고, 흥미롭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순간에 살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풍경으로 초대**

이번 전시는 자연, 도심, 인물, 도로를 피사체로 삼아 ‘랜드스케이프’, ‘어반스케이프’, ‘휴먼스케이프’, ‘아스팔토’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랜드스케이프’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담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매혹적이며 강렬한 보색 대비와 간결한 구도로 신비로운 작품을 창조한다. ‘어반스케이프’는 도심과 물체를 특별한 시점으로, 평범한 현실의 순간을 황금비율의 연금술사처럼 공간의 기하학적 구성으로 매혹적인 평면적 세계를 보여준다. ‘휴먼스케이프’는 빛과 그림자, 실루엣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표현법을 썼다. ‘아스팔토’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피사체와 아스팔트의 도로 기호, 페인트 선과 깨진 틈 등을 찍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절묘한 추상회화로 탄생시킨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사용한 다양한 기법들과 시리즈에 대한 설명들이 전시 곳곳에 펼쳐져 있다. 조각, 파편을 하나하나 모은 비정형적으로 확대한 피사체를 촬영한 ‘프라멘티’ 시리즈, 높은 곳에서 아래로 시선을 내려다본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한 ‘달 알토’ 시리즈, 존재와 부재를 뜻하는 빛과 그림자, 실루엣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한 ‘프레센자 아센자’ 시리즈 등은 가시적인 풍경 너머의 세계를 보는 이에게 확장시켜 준다. 무엇보다 폰타나가 50년 넘게 렌즈라는 매개로 담아온 놀라운 삶의 형태와 색채를 통해 어떻게 그가 인생이라는 풍경을 포착하고 소유하였는지 확인시켜 준다.

1. FRANCO FONTANA© Los Angeles 1990  
2. FRANCO FONTANA© modena 2005 T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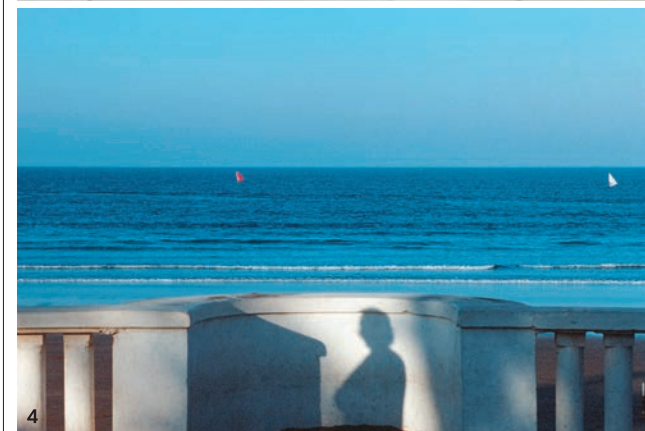


**프랑코 폰타나는** 1933년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에서 태어나 사진과는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다 28세가 되던 1961년에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 후 4년 뒤 1965년 토리노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후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세계의 유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400회 이상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출품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브랜드 캐논, 소니, 페라리, 볼보, 돌체앤가바나, 베르사체, 코닥 등과도 협업하며 세계적인 명성의 순수 예술 사진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 마케팅 제안**

이번 전시는 일상 속 컬러를 즐길 수 있는 큐레이션을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 마케팅을 통해 전시의 감동과 여운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노루페인트의 팬톤 페인트 협찬으로 전시장의 다채로운 컬러와 컬러명을 직접 눈으로 즐기고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지니뮤직과 함께 귀로 듣는 컬러별 뮤직을 제안하고, 직접 관람객들이 ‘뮤직 컬러 스케이프’를 만들어보며 컬러와 음악적 취향을 확인하고 공유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파크 하얏트 서울의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 코너스톤과 협업하며 프랑코 폰타나 작품을 오마주한 노빌레 디너 코스 메뉴와 디저트를 선보여서 많은 사람에게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컬러를 선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슨트 및 오디오 가이드 전시해설로 작품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어린이 대상 교육으로 키즈 아틀리에와 시즌 이벤트 프로모션 등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3. FRANCO FONTANA© - Los Angeles 2001 DAS  
4. FRANCO FONTANA© CASABLANCA MAROCCO 1981



**전시장:** 마이아트뮤지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B1)  
**전시기간:** 2022년 9월 30일 ~ 2023년 3월 1일  
(1월 22일 설날 당일 휴관/공휴일 정상 개관)  
**관람시간:** 월~일요일 10:00~20:00(입장 마감 19:00)  
**홈페이지:** www.myartmuseum.kr



## 잠깐 거긴 서해잖아! 인천 해돋이 명소



해가 서쪽에서 떴다. 서해 수평선을 물들이는 진홍색 여명도,  
태양이 고개를 내밀어 수면 위로 올라왔기 시작할 때 생기는 ‘오메가( $\Omega$ )’ 현상도,  
빛의 반영을 따라 검푸른 새벽 바다 위에 주홍색 카펫을 만드는 모습도 동해 일출과 다르지 않다.  
파도가 잔잔해 서해 아침은 더욱 붉고 질다. 인천 영종도에서 새해를 맞았다.

글. 이봄 사진. 유승현

### 석산곶

늦었지만 그래도 1월 한 달만큼은 뜨는 해에 신년의 기원을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달 중 다녀오면 좋을, 비교적 덜 알려지거나 인파가 몰리지 않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는 한적한 일출 명소를 고르고 있다면 석산곶을 추천한다.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석산곶에서는 조금 특별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바다, 도시, 해돋이라는 이색적인 풍광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송도국제도시 사이로 떠오르는 해와 인천대교 주탑의 조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석산곶 앞으로는 군도들이 보이지 않아 넓게 펼쳐진 바다를 조망하기 좋으며 인천대교의 아름다움이 더욱 두드러져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여기에 인천공항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해돋이를 기다리는 동안 이륙하는 비행기를 감상하며 지루함을 잊을 수도 있다. 수평선 끝이 물들기 시작하고, 조금씩 해가 떠오르다 붉은빛이 사라지면서 서해의 아름다운 돌과 조개껍데기 등이 반짝거리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한다. 뽕안 모래사장과 잔잔한 바다는 아니지만, 거친 바다생물들의 흔적과 독특한 물결을 만날 수 있는 석산곶. 새해 일출을 남들과 다른 곳에서 보고 싶다면 석산곶에서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해 보자.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4-2







##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전 구간 서해바다를 조망하며 달리는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는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서해의 멋진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는 5.6km 구간을 달리는 데 약 50분가량 소요되며, 영종진과 송산 구간을 왕복한다. 월미도를 비롯해 송도신도시, 인천대교까지 한눈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레일바이크를 타는 내내 감동으로 다가와 잊지 못할 새해 첫 추억을 선사한다. 겨울이라 바닷바람에 손가락은 얼얼할지 모르지만 동승한 사람과 발맞추어 열심히 페달을 돌리다 보면 인천 앞바다는 물론 팔미도와 무의도 등이 한눈에 들어오고 아름다운 곡선을 연출한 인천대교가 겨울 여행의 낭만을 한층 더 높여준다. 올해는 해돋이를 보러 막히는 도로 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를 타며 새해 소망을 다짐해 보자.

주소 인천시 중구 구읍로 75

## 거잠포 선착장



거잠포 선착장은 서해의 이색 해맞이 장소로 유명하다. 이 포구에서는 일출뿐만 아니라 일몰까지 감상할 수 있어 일명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아름다운 포구’로 잘 알려져 있다. 포구 앞에는 매도랑과 사렴도 등 두 개의 무인도와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특히 상어 지느러미를 닮아 ‘샤크섬’이라고도 불리는 매도랑 위로 떠오르는 새해 해맞이는 사진작가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포토존이다. 매도랑 위로 해가 뜨면 해의 밑 부분이 바다에 비쳐 잔영이 남는 ‘오메가( $\Omega$ ) 일출’ 현상이 장관을 이루는 데 실제로 보는 이가 드물 정도로 특별한 장면이다. 거잠포 선착장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서 일몰과 일출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새해가 되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 서해안 최고 해돋이 명소로 손꼽히는 만큼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인도 매도랑을 배경으로 한 일출은 가슴 벅찬 설렘과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

주소 인천시 중구 잠진도길 11



LIVE

## 새로이 적는 여행의 기록

새해 공항을 찾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티켓을 만지는 손길에는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 어떤 경계도 없이, 그 어떤 한계도 없이  
그저 여행의 기대감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여행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까요?

누구와 함께하든, 목적지가 어디든  
여행 후에도 두고두고 곱씹을 수 있는  
잊히지 않을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4

국제선탑승  
国际线登机  
International  
Boarding

카트  
CARTS

출국장 GATE

4



Security Check is mandatory pursuant to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passenger safet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 모두가 간절히 바랐던 단어 바로 '여행'입니다

올해는 조금 유난스러워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그만큼 꼼꼼하게  
단단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어떤 여행을 계획하셨나요?”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행복해지는  
당신의 여행에 인천공항도 함께합니다.



## 다시 여행하기 좋은 시절의 '우리'에게



여행을 생각하는 1월의 오후, 거리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사람들은 저마다 여행을 꿈꾸고 계획하며 다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  
동남아의 습한 열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오지의 탐험을 계획한 이들에게도,  
그저 공평하게 설렘이며 선물인 여행.  
다시 여행하기 좋은 계절 앞에서 모두의 여행이 안녕하기를, 행복하기를.  
더없이 완벽한 여행으로 채워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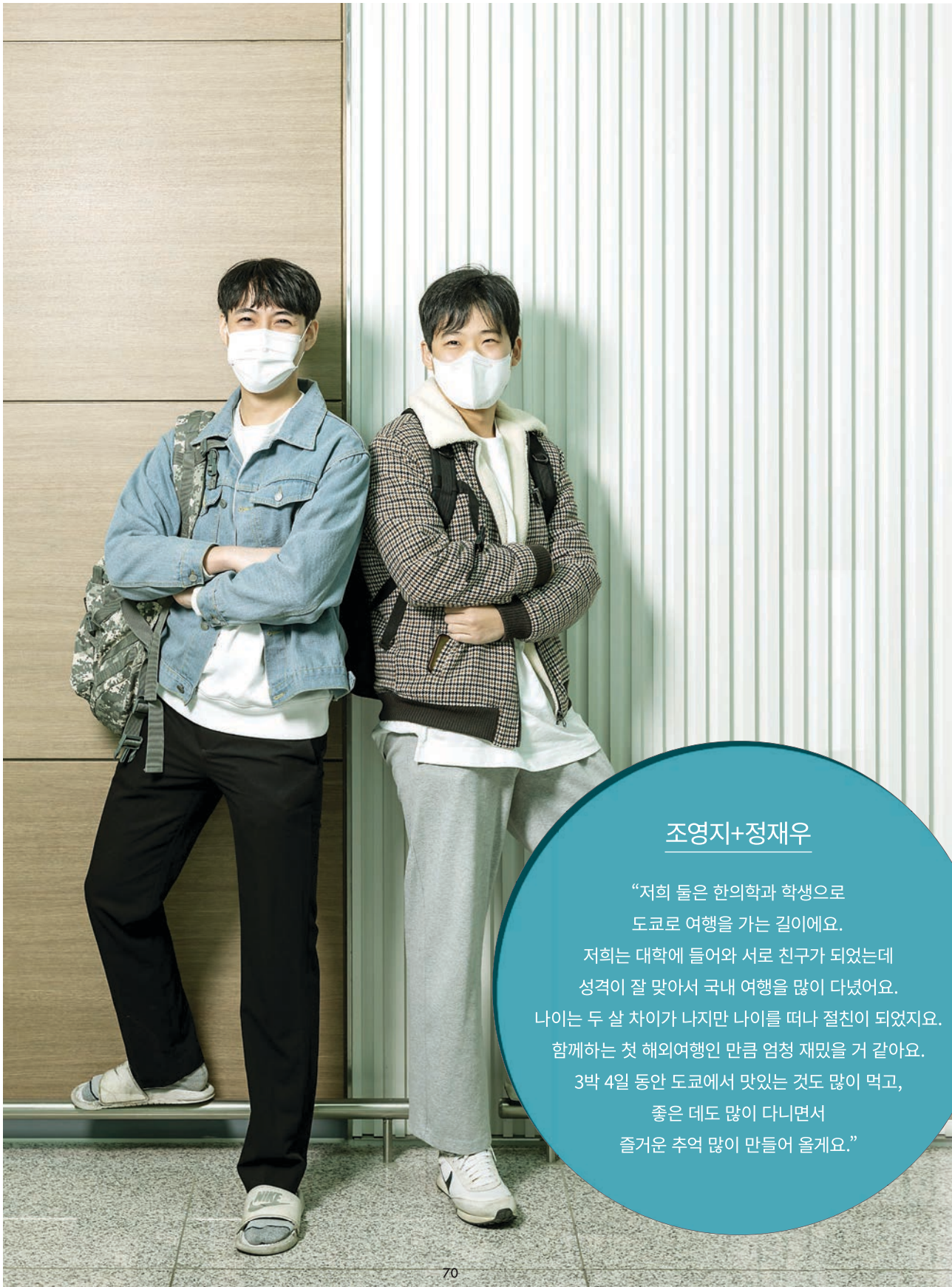
글. 이정인 사진. 유승현

### 이현진+김유중

“남편이랑 2박 3일 동안 후쿠오카에 다녀오려고  
공항을 찾았어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여행을 다닐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10월에는 방콕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보다  
공항에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일상이 회복된 느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목말랐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공항을 찾은 사람들 모두 행복한 여행을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면 좋겠네요.  
저희도 잘 다녀올게요.”







### 조영지+정재우

“저희 둘은 한의학과 학생으로  
도쿄로 여행을 가는 길이에요.  
저희는 대학에 들어와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성격이 잘 맞아서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나이는 두 살 차이가 나지만 나이를 떠나 절친이 되었지요.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인 만큼 엄청 재밌을 거 같아요.  
3박 4일 동안 도쿄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많이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올게요.”



### 서예슬+유선호

“남편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장기 출장 중이에요.  
그래서 오래 떨어져 있는 남편도 만나고,  
가족여행도 하고 싶어서 이번 여행을 계획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더 서둘렀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라 기대가 커요.  
남편 없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이  
조금 걱정도 됐었는데 공항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를 보니 안심이 되요.  
이렇게 즐길 거리가 다양한 줄 몰랐어요.  
공항만으로도 여행이 되네요.”



#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자폐인 디자인 브랜드 오티스타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 작업에 나서고,  
디자인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오티스타의 특징은 시각적 학습자인 자폐인의 재능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자폐인의 재능이 활짝 피고 있는 오티스타에서 장애인 고용이 의무가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글. 강나은 사진. 유승현



## 자폐 연구 프로젝트가 디자인 기업으로

자신감 있는 강렬한 색채와 동심을 담아 있는 특별한 표현  
법이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티스  
타는 대학에서 자폐인의 시각적인 재능과 이 재능을 발현  
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경쟁력을 확인하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자폐인은 자신이 해석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시각적인 표현에 능하기에 그림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그림을 잘 그리는 이들이 많다. 이러  
한 프로젝트가 이론적으로 가능성을 제시한 단계였다면,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폐인이 디자이너로 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회사가 있어야 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된 디자인 스쿨에서 자폐인을  
모집해 교육해왔던 만큼 여기에서 자폐인 한 명을 채용하  
는 것으로 오티스타가 시작되었다. 이후 오티스타가 성장  
하면서 장애인 채용은 점차 증가했고, 현재는 오티스타 내  
에서 전체 직원 20명 중에서 13명의 자폐인이 함께 일하  
고 있다.







오티스타를 설립한 이소현 교수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자폐 또는 장애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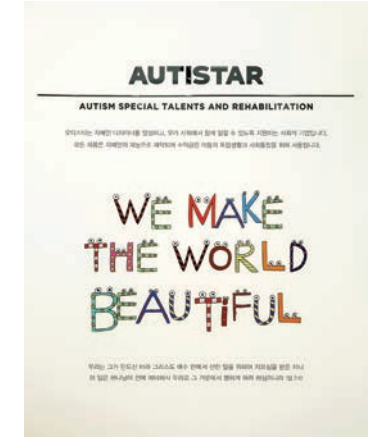
일 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 맞는 이들이 들어와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의 재능이 꽃피고, 가족이 변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어나갈 것이다.

#### **비행기를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그려낸 인천공항**

오티스타는 올해로 10년 차가 되면서 실현가능성은 물론, 지속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최근까지 오티스타를 성장시켰던 한 축은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 물론 오티스타에서는 눈에 띄는 디자인 문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제한되는 편이다. 하지만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디자인만 전달하기에 오티스타의 강점을 보여주기 좋은 방식이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자폐인 디자인 브랜드인 오티스타와 협업을 원하는 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이소현 교수는 “사회 공헌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오티스타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잇는다.

그중에서도 한국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오티스타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며 점차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필 관련 디자인 상품으로 기획되었던 첫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오티스타에서 인천공항,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인천공항과 관련된 작품을 만들고, 이 시



오티스타는 자폐인의 특별한 재능 재활이라는 영문(Autism Special Talents And Rehabilita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회사명. 자폐인의 재능 재활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으로, 시각 학습자인 자폐인의 특성과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디자인과 디자인제품을 내놓고 있다. 우리 모두는 자폐인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으로, 자폐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품을 기획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디자이너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프로젝트였다. 자폐인의 특정 관심영역에 차, 비행기 등의 탈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항으로 출장가서 직접 비행기를 보고, 그리는 과정을 통해 디자이너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한껏 표현할 수 있었기에 일러스트의 완성도도 높았다.

오티스타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보다 자폐인의 성장을 중심으로 두고 기업을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자폐 출현율이 2%에 달하는 만큼,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오티스타의 모델을 확장시키려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자폐인의 적성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오티스타 내에서 자폐인의 직무 지원을 돕는 팀이 따로 운영되는 만큼 자폐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에 직무 지원을 돕는 방식을 체계화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 출국 전 롤 한 판? '라이엇 아케이드 ICN' 오픈

전 세계 MZ세대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이제 인천공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공항이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 '라이엇 아케이드 ICN'을 오픈한 것. 여행과 게임의 만남으로 이뤄진 라이엇 아케이드 ICN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유승현



### 세계 최초 공항 내 게임 스페이스

라이엇 아케이드 ICN은 세계 최초로 공항 내에 조성된 게임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여객들은 이곳에서 게임 체험은 물론 게임 캐릭터 전시, 게임 음악 감상 등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게임과 여행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조성된 라이엇 아케이드 ICN은 △라이엇 게임즈의 대표 콘텐츠인 LoL을 체험하는 게임 공간 △유명 아티스트와 라이엇 게임즈의 콘텐츠를 콜라보 한 문화예술 전시 공간 △E-스포츠를 관람하는 최상급 미디어 공간 △음료와 쿠키를 무료로







**라이엇 아케이드 ICN**

**위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 29번 게이트 옆  
**운영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 △AR(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토부스가 설치된 문화공간 등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객들은 비행기를 기다리며 라이엇 게임즈의 대표 PC 게임 'LoL'과 '발로란트'를 플레이하며 시간을 보내고, '와일드 리프트', '전략적 팀 전투', '레전드 오브 룬테라' 등의 모바일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LoL 챔피언 '유미'의 안내에 따라 포토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자기기를 충전하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쳐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확장**

세계 어느 공항에도 없는 특별한 공간인 라이엇 아케이드 ICN은 공항에서의 긴 대기시간을 쇼핑과 휴식을 넘어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간은 ▲게임 플레이 ▲미션 수행 및 상품 획득 ▲휴식 및 정보 확인 등 여객들을 위한 새로운 경험의 장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여행의 출발을 조금 더 다채로운 경험으로 채워줄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한 셈이다. 인천공항은 이번 복합문화공간 외에도 지난 7월과 10월에 각각 세계적인 브랜드인 루이비통, 젠틀몬스터와 협업하여 인천공항 면세공간 내 문화예술, 체험, 휴식을 융합한 공간을 구성하는 등 여객들에게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글로벌기업, 화제성 있는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협업 등을 통해 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인천공항 라이엇 아케이드 ICN 영상으로 만나보기





## 인천공항 접근성에 낙조 감상은 덤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

영종도의 상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공항뷰와 영종도를 품은 오션뷰를 가진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가 오픈했다. 체크인 순간부터 체크아웃하는 그 순간까지 여행의 설렘과 완벽한 호캉스를 제공하는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를 주목하자.

정리, 편집실 자료제공.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



### 제2여객터미널 인근 호텔 찾고 있다면 주목!

“제2여객터미널 근처 하루 머물만한 호텔 추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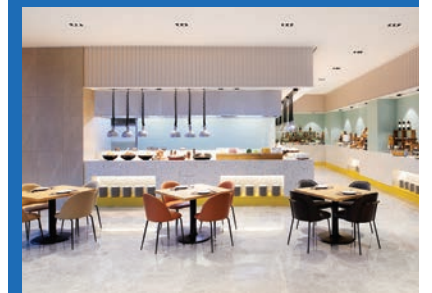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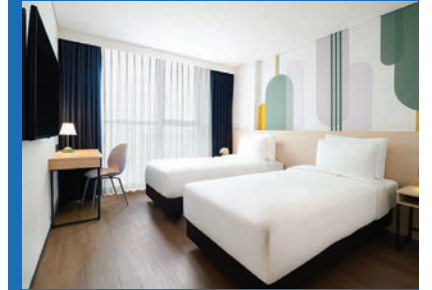
“인천공항 근처 괜찮은 호텔 없나요?”

여행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단번에 해결해 줄 호텔이 오픈해 여행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다. 지난 12월 1일 개관한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공항 이용객들에게 여행 전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장기주차장도 맞은편에 있으며 자차 이용 시 2분, 셔틀버스로 10분 만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과 호텔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호텔은 객실마다 영종도의 상징인 철새와 비행기를 모티브로 하여 컬러풀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들을 추가하여 재미 요소를 더했으며, 1층 로비부터 12층 야외정원까지 어디서든 비행기 이착륙 모습과 탁 트인 영종도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호텔에서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15분 거리에 을왕리 해변, 왕산 마리나 등이 위치해 있어 특별한 휴가를 떠나는 여행자들에게도 편안함과 설렘을 선사한다.

### 여행의 시작과 끝을 완성 시켜 줄 곳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는 제2여객터미널 인근의 최초 글로벌 브랜드 호텔로 기존 도심의 이비스 스타일의 이미지를 벗어나 최고의 서비스와 객실 그리고 부대시설을 자랑한다. 가족 및 친구들이 함께 투숙할 수 있는 디럭스 스위트와 총 3개의 침대로 편안한 투숙을 제공하는 슈퍼리어 스위트 트리플룸 등 58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하여 총 360개의 룸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는 투숙과 함께 미식 여행까지 완벽하게 마칠 수 있다. 호텔 내에 마련된 '라 퀴진' 레스토랑에서는 30년 이상 다양한 경력의 셰프가 만든 시그니처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물결치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즐길 수 있는 '바 티투(Bar T2)'에서는 전문 소믈리에가 엄선하여 추천하는 와인과 샴페인을 즐기며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피로를 풀 수 있는 남녀 사우나와 최첨단 기기를 갖춘 체력장도 준비되어 있다.

멋스럽고 재밌는 요소들과 함께하며 이색적인 뷰를 가진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인천 에어포트는 휴식을 필요로 하는 여행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및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크리에이터, 미식과 와인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에게도 훌륭한 여행의 목적지가 될 것이다. 🍷





### 호주 콰타스항공 인천공항 신규취항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3대 항공사 동맹 ‘원월드(Oneworld)’의 창립멤버이자 호주 최대 국영항공사인 콰타스항공을 12월 10일 인천-시드니 직항 정기편 운항을 개시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98년 2월) 당시 운항 중단된 이후 24년 만의 한국정기편 취항이다. 현재 인천-시드니 구간에는 콰타스항공 외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젯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 취항하고 있어 인천공항이 보유한 장거리 노선 중에는 드물게 5개 항공사가 경쟁하는 격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호주간 공급력은 주당 총 8천석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공운임의 하락 및 다양한 항공 스케줄로 한국-호주간 항공 여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머스크 에어카고 인천-미국 그린빌 신규취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 2일부터 덴마크의 머스크 에어카고(Maersk Air Cargo)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인천-미국 그린빌\*(주2회) 노선에 취항하였다. 이번에 취항하는 인천-미국 그린빌 노선은 주 2회 부정기편으로 우선 운항되며, 향후 2023년부터 주 9회 정기편으로 확대 운항 될 계획이다. 머스크 에어카고가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초 취항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인천공항의 물류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항공화물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린빌 스파르탄버그 공항: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북서부에 위치



### 인천공항 지역사회 나눔문화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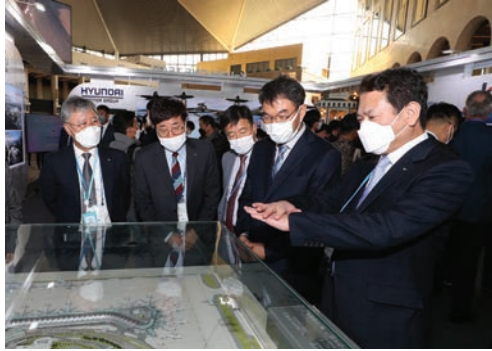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청 애들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진행된 ‘희망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7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공사가 전달한 17억의 성금으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9.3도 상승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연말 진행되는 캠페인에 사회공헌 성금을 전달해온 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누적 성금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대표 사회공헌 선도기업으로서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한층 그 의미를 더했다. 공사가 전달한 지역 사회공헌 성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쓰일 예정이다.



### 소음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장학금 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월 1일 지역사회 미래인재 양성 및 소음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인근지역 중·고교생 67명에게 총 1억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유대강화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사는 학업지원금 이외에도 지역주민 행사, 장례비 지원, 개별가옥에 대한 방음시설 및 에어컨 설치 등의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에는 주민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환경 오염물질 제거사업과 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지원 규모는 약 169억 원에 이른다.





## 인천공항 제2회 K-UAM Confex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제2회 K-UAM Confex (11.10-12, 인천시 주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은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로 공사는 여객 접근성 개선 및 미래공항 구현을 위한 UAM 공항시설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K-UAM Confex를 개최하여 도시·공항·기업이 함께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K-UAM Confex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UAM 산업과 기술 생태계를 그려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으로서 UAM 글로벌 산업 생태계 플랫폼 창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태지역 항공정비(MRO) 허브 투자유치 실시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월 15일 美아틀라스에어월드와이드홀딩스(AAWW), 국내 항공정비 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Sharp Technics K)와 ‘美아틀라스항공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정비(MRO) 허브 투자유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공항은 美아틀라스항공의 미주노선 화물기 전량에 대한 정비를 전담 처리하게 되는 아태지역 MRO 허브를 유치함으로써 국내 항공MRO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글로벌 항공MRO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공항협회의(ACI) 주관 고객경험인증제  
인천공항 세계 최초 5단계 인증



## 세계 최초 5성급 공항 서비스로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공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더 즐겁고, 더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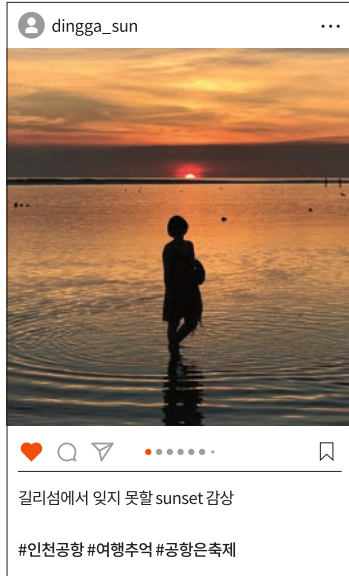
우리는 사람과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결해나갑니다

공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서  
인천공항은 공항의 새로운 내일을 제시합니다





EVENT



공항은

축

제

다



EPILOGUE

우리 모두의 '첫'



첫눈, 첫사랑, 첫 키스, 첫 입학, 첫 주택, 첫 여행... '첫'이란 단어는 참 많은 설렘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중에서도 첫 여행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첫 여행'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20대 끝자락에 인도로 배낭여행을 다녀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우연히 떠난 유럽여행에서 평생을 함께 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과 극적인 요소를 제공해 주니까요.

시간이 지나 우리 모두의 '첫' 기억은 흐릿해지고, 감정도 무뎠지만 여행만큼은 늘 처음인 것처럼 새롭기만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2023년 다이어리를 펼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여행 일정을 세웠습니다. 항공권 사이트에 들어가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것으로 1월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여행 계획만 세웠을 뿐인데도 이미 올 한 해가 꽉 채워진 것처럼 설레고 뿌듯합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여행이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에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장시간 비행을 해도, 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긋나도 다 괜찮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낯선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는 흥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설렘을 안고 당신이 '첫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이 오래오래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첫'에 인천공항이 함께합니다. 2023년에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응모방법

2023년 1+2월호 인스타 주제는  
#시작하는여행입니다.

SNS 채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문화매거진 #시작하는여행을 태그해 주시거나, 태그 관련 사진을 편집할 이메일 [aseahog@naver.com](mailto:aseahog@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23년 2월 6일까지